

梅泉 黃玑 詩에 나타난 實行性

黃秀貞*

<차례>

- I. 머리말
- II. 매천 시의 실행성 표현
 - 1. 豊非豊의 서글픔 토로
 - 2. 외세 의존에의 질타
 - 3. 시로써 승화된 절의
- III. 맺음말

I. 머리말

시인은 시대의 공기를 호흡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시는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시는 시인에 의해 인식된 현실과 현실에 대한 자각을 긴장된 언어로써 美的으로 표현한 것이다.¹⁾ 그러므로 시는 인생세대에 대해 취사선택하여 다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야 반드시 창조가 있으며 시인의 개성과 정서가 스며드는 것이다.

梅泉 黃玑(1855 ~ 1910)이 생존했던 시기는 유가이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봉건 해체기였다. 그러한 세계관의 흔들림 속에 매천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냉철하게 시대를 인식했다. 따라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문학성과 사회성을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다. 매천은 경사에서 벼슬생활을 마다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농촌으로 잡았다.²⁾ 이는 날로 어지러워져 가는 조정의 세력 다툼과 과거제도의 혼탁상에서 느낀 환멸로 인해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자한 것이다. 따라서 매천의 농촌생활은 도학자적이고 吟遊的인 시풍을 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詩作은 백성들의 현실에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 몸소 체험한 바를 바르게 전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찍이 滄江 金澤榮은 매천의 시대인식에 대하여 이르길 “매천은 현실성을 중시하여 현실과 거리가 먼 관념적인 학문에는 손을 대지 않아 그의 학문은 현실문제에 지향점을 두었다”³⁾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매천의 시대인식은 현재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극복방안을 찾고자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매천의 시에 나타난 실행성을 고찰하여 그의 삶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매천의 현실인식이 그대로 녹아있어 자연스럽게 참여의지가 나타난 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모든 인생이 농촌에서 이루어진 바, 그 삶 속에 빛

* 조선대학교

1) 임형택, 「황매천의 시인의식과 시」,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99, 275쪽.

2) 줄고,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제10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2, 264쪽.

3) 김택영, 「본전」, 『매천전집』 권1, 26쪽. “學主乎通 不喜從時俗講學者遊 好考觀歷代 史籍所載治亂盛衰之跡…思有以救時之艱焉.”

어떤 실행성의 의지를 농촌생활사에서 연구하겠다. 그리고 급변하는 당시 사회현실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 외세 의존에의 현상을 질타하고 그 같은 정서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천이 가장 자신의 실행성을 강하게 표현한 <절명시>와 의기롭게 殉死한 이들의 절의를 드러낸 시를 통해 그의 실천적 의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매천 시의 실행성 표현

1. 豊非豊의 서글픈 토로

매천의 농촌생활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物事を 사실대로 읊기되, 지적·미적인 감각을 살렸다. 그것이 개인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들이 단순히 전원적이지 않은 것이다.

시를 흥취 중심으로 이해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성을 중심으로 이해하여⁴⁾ 생활과 문학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매천은 불의와 사회모순을 질타하고 현 시국을 깊이 근심한 매천시의 주제는 초년부터 말년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시 <種麥歌>⁵⁾에서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前略	
那轉太守心	어떻게 태수의 마음을 바꿀 건가?
離眸照窮廬	가난한 집에는 관심이 없네
不許瓶粟賑	한 줌의 곡식도 도와주지 않고
發令豺虎如	발령은 시호같이 급하네
刻日董官租	날을 다투어 세금을 거두라고 하니
衆皂爛相望	여러 하인들 멍하니 서로 쳐다보네
旋風入山村	돌풍이 산촌에 들어오니
明炬下復上	밝은 횃불 내려가다 다시 오르네
村人朝不炊	마을 사람들 아침밥도 못 짓고
緣崖拾橡栗	낭떠러지에서 도토리 줍다가
日落各扶將	해 지자 서로 부축하여 돌아오니
柴門響蟋蟀	사립문엔 귀뚜라미 울고있네
願言謝官人	바라오니 나으리들
暫我性命許	잠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오
明年麥必豊	내년엔 보리가 풍년일 터인데
割我種麥去	중자보리를 다 빼앗아 갑니까?
古人重麥政	옛사람 보리를 중시한 정책은
本爲貧者惜	본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였네
觀今富人宜種麥	지금은 부자들이 보리를 심어버리니

4) 박무영, 「일상성의 대두와 새로운 사유방식」,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331쪽.

5) 황현, <種麥歌>, 『매천전집』 권3, 83쪽.

貧者何由能種麥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하라고요

이 시는 1876년(22세)의 작품이다. 당시 농민의 비참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 구에서부터 어찌하면 가혹한 관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매천야록』의 기록에 의하면 병자년은 한해와 상해가 심하여 삼남지방은 벼 한 말 값이 100전이나 되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보였다. 시골 마을이 처참하여 백성들은 진흙을 기대했으나 진흙 소식은 없었다⁶⁾고 했다. 이처럼 매천은 흉년과 이에 대한 나라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병들어 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인이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울골음을 견지함과 같고, 시를 포기한다는 것은 시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현실이나 대상에 대한 애정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 결과는 굴종과 타협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⁷⁾ 매천은 가난[貧]의 상황에 결코 굴종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 시로써 현실적 가난[貧]에서 정신적 갈등[窮]을 끌어내어 문제를 사실화,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거둬지는 참상의 원인을 흉년에서 찾기 보다는 세금 수탈 및 정책의 모순에 두고 있다. 농민으로서 실감하고 있는 고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가혹한 세금 수탈 현상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에서 ‘村人’들은 아침밥도 못 먹고 하루종일 산야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다가 해가 지자 겨우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 그러니 집에 돌아와도 처량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뿐이다. 매천은 ‘暫我性命許’라 하며 바라는 바를 표현했으나 ‘割我種麥去’라 하여 그들의 가혹성을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옛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 해왔던 정책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富農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더욱 수탈 당하는 소농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로써 매천은 농민의 처참한 삶을 몸소 체득하고 그들의 참상을 토로하는 동시에 정책의 모순성을 고발하는 실행성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은 매천이 41세(1895)에 지은 것으로 대표작 중 하나로 담배심기 노래 <種菸謠>⁸⁾를 살펴보겠다.

前略

一根一手田如海 날날이 손보는데 밭은 왜 이리 넓은가
始起杳然如難終 처음부터 아득하여 마무리하기 어렵겠네
半生蓄我爪甲利 반평생 다져진 손끝이 날래
頃刻見此籃子空 담배모 삼태기를 어느새 다 비우네
蝦蟆吞月輪蝕入 두꺼비가 야금야금 둥근 달을 갉아먹고
郭索奔泥旁行窮 게란 놈이 뽕뽕 기다 길이 막혔네
地黑葉青青漸多 땅은 검은데 잎이 파래 푸른 곳 많아지니
蝶翅萬片粘春叢 나비 나래 만 조각이 봄 숲에 엉긴 듯이
百歲枯樹山鵲噪 백년 묵은 고목나무 산까치가 지저귀고
午日微綻來霽風 구름 사이로 해가 나자 바람이 솔솔
風便細喉悄欲斷 바람결에 가는 소리 이어졌다 끊기었다가

6) 황현, 『매천야록』, 교문사, 1994, 29쪽.

7) 정민, 『한시미학산책』, 숲, 1996, 220쪽.

8) 황현, <種菸謠>, 『매천전집』 권1, 84쪽.

農諷遠近無南東 농부들의 노랫가락 어디서 들리는가
 我亦十年爲佃客 나 또한 십 년을 남의 땅 부처
 秧秧麥麥人之同 모심고 보리 갈며 농사지었는데
 秋熟要盡公私稅 추수라 하고 나면 소작료 세금에
 磬室依舊豐非豐 여전히 먹을 것이 없으니 풍년도 풍년이 아니네
 自種菸艸田於山 산비탈 일구어 담배 심고서
 柴門犬老贅蒙茸 사립문 앞 늙은 개만 꼬리 흔드네
 但得年年菸價翔 단지 바라는 건 해마다 담배 값이 오르기를
 肯羨三百困塵崇 남의 집에 쌓인 전곡 부러워하라
 癡氓免餓眞好命 백성들이야 굶주림만 면하면 참으로 좋은걸
 水田莫笑山田農 논농사하는 이들 산밭이라 비웃지 마소

이 시는 전체가 38구로 된 서사적인 장편시다. 정교한 묘사와 함께 음의 기세가 대체로 강하다. 이는 불우한 처지에 대한 강개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시의 기세를 높게 해주어⁹⁾ 작중화자의 목소리가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시의 음성적 효과’를 의미하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人情·物態나 인물의 슬픔·기쁨·근심·걱정 등과 같은 정서, 혹은 인물의 말투·모습·행동의 세세한 것까지도 독자가 직접 듣게¹⁰⁾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1895년(41세)에 지은 것으로 작중 화자는 농민으로서 힘겨운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시의 앞 부분에서는 ‘모심기로 마을은 한창 바쁘데 한 농부가 담배 모를 가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그 산길을 가는 데 산뺨도 날아가고, 길옆에는 산밭기가 지천이다. 골짜기에서 굽어보니 밭이랑이 희미하고 논두렁에 溝縫이 희미하다.’¹¹⁾ 사람들은 모내기로 한창 바쁘데 화자는 혼자 벼농사를 포기하고 산전을 일구기 위해 산골로 들어간다. 여기서 농부의 애뜻한 미감과 가난한 농민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 일부 부농층과 토착 지주층들의 농지 독점으로 인해 남의 땅의 작인 노릇으로 연명하였던 주인공은 더 이상 되풀이되는 수탈의 굴레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시에서 매천은 산중에서 담배 모종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현미경적인 관찰없이는 불가능하다. 작고 미세한 부분의 표현이 정교하다. 그리고 들판에서 모심는 노랫가락이 가늘게 이어진다고 하고 있어 산중과 들판 정경의 대립적 묘사가 나타난다. 담배모종을 하려고 하니 밭이 넓게만 느껴진다. 그것을 반평생 농사일에 바쳤던 익숙한 숨씨로 잠깐 사이에 다한 듯이 마친다. 여기서 매천의 독특한 비유를 볼 수 있다. ‘두꺼비가 둥근 달을 점차 값아먹어서 조각달이 된다’는 이야기로 표현하여 밭이 담배 모로 채워짐을 비유했다. 또한 ‘검은 땅이 점차 파란 담배 모로 푸름이 많아져서’ 이를 마치 ‘나비들이 봄 숲에서 서로 엉기어 나는 듯’이 보았다. 이는 자신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의 느끼는 일종의 만족감의 표현일 것이다. 즉, 노동 현장에서의 직접 체험과 세밀한 관찰만이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매천의 농촌 삶이 단순히 관조적이거나 은둔적인 것이 아니라는

9) 이종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458쪽.

10)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이론 연구』, 보고사, 2002, 185쪽.

11) 大雨一夜川流洪 霖霖三日因濛濛 秧務如焚村無備 何人獨向山雲中 雉鷲格格叢莽翻 蓬蒿萬朶眞珠紅 一擔就安松根上 貓耳戢戢青筠籠 石崖坡坨不辨畝 瓦壟千疊迷溝縫

것을 알 수 있다.

매천은 또한 체험한 바를 나열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들을 통해 소작료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豊非豊’이라는 당시 농민들의 실제적인 고충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이며 치열한 비판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는 농민이 십여 년을 농사일에 종사했어도 소작료 등으로 수탈되어 남은 것이 없이 결국 산전이나 갈던가, 유랑민이 되어 버리는 세태를 냉철히 묘사한 것이다.

한편으로 논농사 위주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담배농사로 계속되는 가난을 극복해 보자는 의지가 보인다.¹²⁾ 즉, 山田에 담배농사를 하는 농부가 다른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논농사에 주력했을 때 힘들어 농사지은 보람도 없이 소작료로 모두 바쳐져 남는 것은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豊非豊’의 서글픔을 겪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를 포기하고 담배농사에 힘쓰고 나서는 ‘柴門犬老鼈蒙茸’라 하며 자못 일말의 여유를 찾는다. 그나마 담배농사에서는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힘들게 산비탈을 일구고 ‘오직 바라는 것이라곤 담배 값 오르기만’을 바라는 농민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앞서 바랐던 정책적 배려라든가 관리들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저 연명하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痴氓免餓真好命’이라 하며 농민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반어적으로 그리고 있다.

다음으로 인삼 재배지인 산골의 생활상을 그린 <同福峽中>¹³⁾를 살펴보겠다.

前略

蔘圃盛時參戶貧 인삼밭이 풍작일 때도 인삼 집은 되레 가난하고

官人採取不論銀 관리는 캐어가며 값 치레 묻지 않네

何當乳復珠還日 언제 다시 어지신 원님 오실 날 만나서

銀覓三樞五葉春 삼아오엽 인삼을 제 값으로 찾게 될는지

이 시는 1883년(29세)의 작품으로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을 폭로한 시다. 인삼 농사가 풍작일 때도 농부들의 생활상에서 수확의 보람이나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한시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이미지의 표출보다는 자신의 의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인생체험을 바탕으로 하였고, 전구에서는 자신의 철학을 객관화 시켜 시대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결구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興趣보다는 理趣의 맛이 살아있다 이는 興觀群怨¹⁴⁾으로 대표되는 문학의 대사회적기능, 역할에서 개인을 교화시키고 군신간의 화합과 정치적 변화까지 이르는 詩教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농민들의 계속된 가난의 원인으로 또 한번 관리들의 학정을 꼬집고 있다. 그들의 수탈행태를 ‘官人採取不論銀’이라고 날카롭게 그리고 있다. 이는 평소 매천의 직설적인 언어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으로써 관리들의 가혹한 행위를 한 눈에 그려내고, 그들의 행태를 사실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善政에 대한 염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천은 어진 관리의 출현을 소망한 것이다. 이는

12) 임형택, 앞의 책, 292쪽.

13) 황현, 앞의 책, 41쪽.

14) 금동현, 앞의 책, 118쪽 참조. ‘흥은 문학 작품의 심미 작용을, 관은 문학 작품의 인식 작용을, 군은 문학 작품의 단결 작용을,怨은 문학 작품이 현실에 참여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의 힘겹고 희망 없는 삶에 대한 돌파구로 그들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일상적인 일들을 묘사하면서도 개인적이나, 관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즉, 예리한 시각으로 사회적인 인식 아래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은 세금으로 고통받는 빈농들의 참상을 그린 시<織女怨>¹⁵⁾을 살펴보겠다.

前略

五月六月井稅督 오월유월 정세를 독려하여
 面色焦黧黃髮髭 얼굴 깡마르고 누런 머리와 수염으로
 顧說中婦機絲促 中婦를 바라보며 베 짜기를 재촉하네
 短裙纏腰足脚疲 몽당치마 허리에 두르고 발은 피로한데
 絡緯促織鳴狀下 평상 밑에 귀뚜라미 빨리 짜라 재촉하네
 壁光如畫濕露垂 벽의 불빛 그림 같은데 축축한 이슬이 맺혔고
 寒機札札復札札 찬베를 찰찰 다시 찰찰거리네
 斷腸絲絕苦忍飢 애간장 실처럼 끊어지고 배고픔 견디는데
 東家有人顏如玉 동쪽 집 어떤 사람 얼굴은 옥 같고
 粉粧紅頰飫瓊糜 분장한 붉은 뺨 죽을 실컷 먹었네
 一絲二絲故織怨 한 올 한 올 일부러 원망을 짜며
 冷淚滂滂不舉眉 찬 눈물 줄줄 얼굴을 못드네
 前林慈鳥何苦語 앞 숲에 까마귀 어찌 괴롭게 울어대나
 不得哺母夜啼悲 어미를 못 먹여 밤새 슬피 운다네

이 시는 베 짜는 여성의 원망을 대변하고 있다. 가뭄과 세금 수탈로 인해 피폐해 가는 가정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세금 독려에 몰려서 발을 일궈보지만 가뭄으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은 ‘面色焦黧黃髮髭’로 잘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못해 아내에게 베 짜기를 재촉하는 남편이다. 아내의 모습은 ‘短裙纏腰足脚疲’이라 하여 남편의 모습과 별반 다를없이 지치고 힘든 모습이다. 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시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 부부의 참상이다. 그런데 무심히 시끄럽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힘겨운 아내에게는 더욱 베 짜기를 재촉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는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또한 화자에게는 하찮은 귀뚜라미조차 관리의 편인 듯 냉혹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불빛조차도 눈물을 흘리는 듯 축축하게 이슬이 맺힌 듯 보인다. 이는 밤에 힘겹게 베 짜는 여인의 모습[景]을 통해 여인의 한 맺힌 심정[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무심히 景과 마주하여 마음속에 情이 일어나니 경은 정 의 매개가 된다. 가슴에 자욱한 정을 품고 경을 바라보면 무심한 경물도 내 마음의 빗갈로 물들어, 정은 경에 의미를 불어넣는 배아가 되기도¹⁶⁾한다. 그래서 벽에 비친 불빛을 보니 이슬이 맺힌 듯, 자신의 눈물로 불빛이 축축한 듯 그려지고 있다.

세금으로 바치기 위한 베 짜기는 고통만을 안겨준다. 그래서 고통을 모르고 사는 ‘東家有人’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진다. 따라서 한 올 한 올 원망으로 베를 짜고 흐르는 눈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눈물의 의미는 삶의 고통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15) 황현, 『매천전집』 권3, 259~260쪽.

16) 정민, 앞의 책, 130쪽.

때 다시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묘사했다. 마치 反哺之孝의 효성을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을 노래하는 듯 고통스럽게 들렸던 것이다. 이처럼 매천은 ‘促織’을 권하는 듯한 귀뚜라미 소리와 괴롭게 우는 까마귀 울음을 대비하는 등 시의 적절한 곳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하였다. 이는 더욱 시의 맛을 실감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귀뚜라미를 무리하게 수탈을 일삼는 관리의 목소리로 암시했다. 그리고 앞 숲에서 가련히 들리는 까마귀 소리는 자신의 심정을 목놓아 부르짖는 고통스런 절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관리들의 횡포는 자연적인 재해인 가뭄보다 오히려 농민의 심정을 더욱 짓밟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천의 시에 나타난 실행성의 표현 중에 농민의 삶에서 체득된 바를 살펴보았다. 매천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고통과 울분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다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나타낸 것이다. 또한 농민의 삶에서 보다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원인을 자연재해인 흉년으로 보기보다는 농민들을 핍박하는 관리들의 횡포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로써 그들의 가혹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매천이 보아온 농촌의 삶은 사회적 모순과 병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그것들의 원인은 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농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혹독한 전제의 모순에 두었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한 외면하지 않았으니 다분히 그의 시는 사실적이고 고발적으로, 농촌의 삶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2. 외세 의존에의 질타

매천은 개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세상과 각처에서 붕기하는 의병 활동 등을 간과하지 않았다. 요컨대 매천 시에 나타난 현실대처인식은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 모두에 관심과 염려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곤 하였다.

먼저 매천이 44세(1899년)에 이견창의 소상에 참석하고자 상경했을 때 달라진 서울의 모습을 그린 <入京師>¹⁷⁾를 살펴보겠다.

十年重到漢陽城 십 년 만에 다시 한양성에 올라왔더니
 惟有南山認舊靑 오직 남산만이 예전처럼 푸르구나
 夾道琉璃洋燭上 길 따라 유리창엔 서양전등 걸려 있고
 橫空鐵索電車鳴 공중을 가로지른 쇠줄에 전차는 뿡뿡거리네
 梯船萬里皆新禮 수륙만리가 모두 신식인데
 屋纛千秋始大名 임금은 황제 칭호 처음 가지셨네
 却笑杞人痴滿腹 우습네 기인처럼 어리석음 가득함이
 彼天安有驀然傾 저 하늘이 어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리오

이 시에서 매천은 십 년 만에 올라온 서울의 모습에 낯설음을 표현한다. 모든 풍물은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오직 山川뿐이었다. 거리에는 외세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을 본 것이다. 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전차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다. 이렇게 만리 밖 서양과 교류로 외국문물이 넘쳐난다. 그런가하면 임금은 황제의 칭호까지 새로 받는다. 십

17) 황현, <入京師>, 『황현전집』 상, 196쪽.

년 만에 본 중앙의 모습에선 발전의 기미만 보인다. 그런데 이를 기인처럼 염려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매천의 반어적인 표현에 따른 것이다. 온 거리가 신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허술함을 지적한다. 그것을 ‘屋蠹千秋始大名’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의 기운은 西山落日과 같은 처지에서 국왕을 황제라 부른다하여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는 어마어마한 현관 뒤에 찌그러져 가고 있는 초옥과 다름이 없다.¹⁸⁾ 실제로 1897년 황제의 칭호를 받은 후에 고종 황제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자리를 내놓고 1907년 순종에게 양위된 것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즉, 걸만 그럴듯한 외세의 모습을 질타한다. 그래서 서양문명이 화려하게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서 우리 손으로의 자주적인 발전이 아닌 걸모습만 억지로 꾸며진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현했다.

매천은 ‘彼天安有驀然傾’라 하여 하늘이 갑자기 무너질 수 없다고, 즉 천지개벽 같은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 개화가 계속되면, 결국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매천은 이렇게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예견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매천은 <言事疏>에서 개화의 의미를 本末이 전도되지 않고 근본이 우선 이루어진 뒤에 末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開物化民’으로 지적하였다.¹⁹⁾ 즉, 매천은 사회윤리나 정신적인 면을 ‘本’으로 하고, 물질적인 면을 ‘末’로 나누어 ‘本’을 세운 후에 ‘末’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개화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이 시에서 변해 가는 세상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고 그것을 반어적 수법으로 표현하여 경고의 의미를 싣는 실행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 속에 ‘意在言外’²⁰⁾의 뜻을 암시하며 意境을 표출한 것이다.

다음 시는 48세(1902년) 목포를 지나면서 지은 <發鶴浦至糖山津>²¹⁾ 7首 중 그 일부를 살펴보겠다.

前略

海禁開時國已愚 바닷길 열었을 때 나라게척 이미 어리석었네

空聞關稅較錙銖 관세 받는다고 한두 냥 다툰다네

漆箱磁罍智安用 칠상과 자기는 어디에다 쓸 것인가?

擲盡東南萬斛珠 우리나라 많은 곡식만 흘러나가네

下略

이 시에서는 개항을 할 때 우리나라를 ‘國已愚’라 하여 우리만의 대비책을 준비한 바 없었음을 질타하고 있다. 부질없이 남의 말만 듣고 알량하게 관세만을 따지는 것이 자못 한심스러운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항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역의 불균형과 무분별한 수입을 개탄한 것이다. 매천은 內修 없는 개방은 일본이나, 서양세력의 침략을 부르는 것이므

18) 정찬웅, 「매천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0쪽.

19) 이병기, 『梅泉黃玑散文研究』, 428쪽.

“夫開化云者非別件也 不過開物化民之謂 則開物化民可以無其本而致之乎 若親賢遠奸愛民節用信賞必罰之類即所謂本也 若鍊軍伍利器械通商販之類即所謂末也 西人之法雖與中國異 今考彼所謂萬國史則 其興也必由於立其本 苟無其本雖強必斃興亡之跡種種可考 由是觀之 開化之名雖屬創見 其實與中國之治無以異也。”

20) 주광갑, 『시론』, 동문선, 135쪽.

21) 황현, <發學浦至糖山津>, 앞의 책, 274쪽.

로 과국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뤄진 문호개방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漆箱과 磁器 같은 물건들의 무분별한 수입과 백성들에게 귀중한 곡식이 빠져나가 버리는 무역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남을 直筆하고 있다. 즉 漆箱과 磁器같은 사치품을 들여오고, 이의 댓가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인 곡물이 동남으로 유출되자 이를 외세의 경제적인 침투로 看做했다²²⁾ 이는 끊임없이 깨어 있는 시각으로, 바른 史觀을 가지고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었고 반성하게 한다.

석전 황원의 기록을 보면 매천은 “聰明絶人하여 만 여권의 책을 보고 모두 기억하였고, 綱目과 明史에 더욱 능통했으며, 國朝의 典故는 두루 보지 않은 것이 없어 명료하기가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 하였다.”²³⁾라 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학문 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을 추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매천이 몸은 비록 향리에 있었으나 늘 憂國憐民하는 마음을 지녀서, 반드시 시대에 필요한 학문에 뜻을 두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실학사상을 동경했고, 민중들의 활동을 의식하여 보수·전통의식을 탈피하고자 했고, 새 문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식학교의 설립 운영에도 참여하여 나라의 살길을 모색하기도 해 보던 선각자였다.²⁴⁾ 이처럼 매천은 위 시에서 개항을 반대하는 의식의 형상화라기보다 개화라는 미명아래 외세에 의존하며 백성의 생활이 날로 핍박받는 불안한 현실을 비판적 입장에서 지적한 것이다.

다음 시는 매천이 1909년(55세)에 쓴 <入都>²⁵⁾이다.

一上終南俯帝畿 남산에 올라 한 번 굽어 본 서울 땅
望中雲物轉淒微 보는 것마다 더욱 처량하고 혼미해라
九街輪織秋塵漲 큰 거리는 수레바퀴로 가을 먼지만 그득하고
雙闕煤昏晝漏稀 두 대궐은 침침해서 대낮도 짧은 듯하다.
皮幣有盟人自誤 폐백으로 맹세했던 벼슬아치들 잘못되어가고
銅駝無恙局還非 서울거리 탈이 없지만 판국이 벌써 글렀구나
古來亡國多如鯽 예전에 망한 나라가 다 이 모양이었던가
亡得分明不足悲 망한 것 분명하니 슬플 수도 없구나

이 시는 중국으로 망명했던 창강 김택영²⁶⁾이 잠시 귀국했을 때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가서 본 심정을 읊은 것이다. 비록 김택영은 이미 떠나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동안 더욱 혼미해진 중앙의 모습에 슬플 수도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매천이 앞서 언급한 1899년에 지은 <入京師> 보다 한층 국운이 쇠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入京師>에는 급격히 변하는 서울의 모습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이 시에서는 그 불안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이 확인되는 절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남산에서 바라본 도읍지에 쓸쓸하고 황량한

22) 공병성, 『황매천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83쪽.

23) 황원, 『先兄梅泉公事行零錄』, 『매천전집』 3, 36쪽.
“精聰明絶人 閱書萬餘卷皆能記憶 綱目及明史尤熟 國朝典故無不搜覽 瞭如指掌.”

24) 이민수 역, 『동학란』, 을유문화사, 1985, 42쪽.

25) 황현, 『황현전집』 상, 352쪽.

26) 줄고, 『梅泉 黃玑 傳記研究』,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77쪽.

기운이 감도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멀리서[遠] 가을 풍경을 보는 듯 쓸쓸함을 담은 듯 하지만, 사실은 궁궐 내부[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풍조를 꿰뚫고 있다. 그곳에서 ‘위정자’라고 하는 이들의 잘못된 정책 수행과정을 비판한다. 그들의 행동에서 매천은 이미 ‘銅駝無恙局還非’라 하며 망국의 기운이 깊어졌음을 감지한다. 이렇게 매천은 멀리서 전체를 보고 내부를 직시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시 주제의 효용성을 높였다.

당시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일본 통감부로 넘어갔고 일본 통감부에 의해 사법권까지 강탈당해 이름만이 대한제국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는 ‘합방’이라는 미명아래 국치의 난이 다했음이 예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천은 ‘亡得分明不足悲’이라 하여 나라의 망운을 분명히 예감하고, 슬퍼도 그 슬픔을 토해낼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여기서 매천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 자신의 처할 바를 다시금 切齒腐心하는 마음으로 熟考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매천은 시를 통해 현재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표현했으며, 미래 나아가갈 바를 끊임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망국의 그늘이 엄습해오는 것에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매천은 그의 시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시에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것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매천은 위의 시들을 통해 변해 가는 세상의 모습을 정치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반어적 수법으로 표현하여 경고의 의미를 실는 실행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 속에 意在言外를 암시하며 意境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망운을 분명히 예감하고, 슬퍼도 그 슬픔을 토해낼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매천은 멀리서 전체를 보고 내부를 직시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시 주제의 효용성을 높였다.

3. 시로써 승화된 절의

매천 자신은 시대현실을 정확히 알고 또한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소산으로 1895년 의병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하여 1908년부터는 「義報」의 내용을 월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을사조약 체결이후부터 매천은 의병운동에 글로써 참여했으며, 1908년부터 『매천야록』에 마련한 ‘의보’란에는 그 전황을 적으며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매천의 현실인식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병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현실의 극복방안으로서 당대의 史的 기록에 책임감의 소산인 것이다. 매천은 구한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비판적 지성인의 자세로서 국가와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켰다. 따라서 매천이 가장 자신의 실행성을 강하게 표현한 <절명시>와 의기롭게 殉死한 이들의 절의를 드러낸 시를 통해 그의 실천적 의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매천이 1907년(53세)에 쓴 <哀梁草溪>²⁷⁾를 살펴보겠다.

前略

七尺堂堂熊虎姿 칠척의 당당한 곰과 호랑이 자태로

風塵顧盼足男兒 풍진의 전장을 중횡한 대장부로다

高才未試憐身賤 높은 재주시험도 못해 본 천한 신세지만

27) 황현, 『황현전집』 상, 341~332쪽.

大義將伸歎數奇 큰 뜻 펴려 했는데 통탄할 운수로다
 天外魂啼悲宇宙 하늘 너머 우는 낮은 우주를 슬프게 하고
 地中尸出凜鬚眉 땅을 열고 일어난 시체는 수염도 늠름하네
 恍疑草木軍聲起 산 속에서 군악소리 나는 듯 하는 것은
 夜夜蛟山月墮時 밤마다 교산에서 해지는 때라

이 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남원에서 起兵한 梁漢奎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일본군의 습격으로 전사하여 길가에 묻히게 된다. 십 여일 후에 일본병이 무덤을 파헤쳐 보니 땅 속에 시체가 살아 있는 듯 怒氣를 띠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칠척의 당당한 장부의 몸으로 전장에서 그 위력을 중형으로 떨친 대장부임을 칭송한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장부로서의 기세를 떨쳤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高才未試憐身賤’이라 하여 신분제에 얽매어 시험조차 치를 수 없었던 개인적인 한마저 서려있다. 이는 매천이 약관의 나이에 상경하여 시험을 본 후 일등을 하고도 향리출신이라는 이유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한다. 인재가 널리 쓰이지 못하고 스러져간 녀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니 돌아간 혼도 편치 못하고 하늘 밖에서 우는 듯하여 온 세상이 슬픔에 젖어있다.

땅 속에 묻었던 시체가 노기를 띠고 일어나는 듯 하니 함부로 할 수 없는 비장감이 서린다. 그래서 고요한 산 속에 다시 ‘군악소리’ 웅장하게 울리는 듯 하는 것은 대장부의 식지 않은 기세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서늘할 정도로 죽은 이의 한이 출병을 권하는 군악소리로 울려 퍼져서 기세의 영원함을 그리고 있다. 실로 장엄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1·2구에서는 장부의 당당한 모습을 그렸고, 3·4구에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인재가 널리 쓰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다. 5·6구에서는 진한 절망감의 표현으로 비장감과 함께 신이함까지 느껴진다. 7·8구에서는 더욱 큰 뜻을 나타내고자 웅장한 울림의 군악소리로 죽었어도 죽지 않은 숭고함을 그리고 있다. 매천은 무명의 백성들도 분연히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싸우다 죽어 가는 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력감을 상대적으로 깊어갔을 것이다. 이에 대처할 바를 끝없이 자문하는 것이다.

다음은 을사조약 이후 울분을 토하며 殉死한 인물을 읊은 <紀平壤隊兵金奉鶴自裁事>²⁸⁾를 살펴보겠다.

前略
 誰禁羈流蹤 누가 타관살이를 막았는가
 奈此一腔血 어찌하랴 이같은 가슴 속 혈기
 怒湧填心胸 분노가 솟구쳐 가슴을 메웠네
 觸城碎我鏖 성을 들이받아 나의 투구 깨뜨리고
 斫石缺我鋒 바위를 내려쳐서 나의 창날 부러뜨리겠네
 天翁俯見之 천옹이 내려다보고
 慘慘難爲容 참담하여 얼굴 퍼지 못하네
 前生唐衛某 전생은 당위모였고

28) 위의 책, 304~305쪽.

이 시에서 매천은 김봉학에 대해 미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의 의기를 분연히 떨쳐 그 정기가 평양 땅에 넘친다고 칭송한다. 그에 반해 을사조약 체결의 주동자들을 ‘주인을 물어뜯는 무리들’이라고 꼬집으며 그들의 의기양양한 태도에 천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격한다. 이 시에서 매천은 김봉학의 ‘가슴속의 혈기’가 뜨겁게 솟구쳐 그의 분연한 모습에 마치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듯 그려내고 있다.

은 조정에서는 즐거워하는 데 의로운 열사는 분노로 가슴을 메우고 마침내 성을 들이받고 투구를 깨뜨린다.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을 장렬히 버리는 군사의 기상이 비장하다. 자신이 쓰던 창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天翁마저도 결연히 창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시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다. 그 처참함에 천옹마저도 얼굴을 펼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김봉학의 전생은 唐衛某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후생에는 施全의 무리가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김봉학에 비유되는 唐衛某, 施全 등은 모두 낮은 신분으로 절의를 표했던 인물들이다.²⁹⁾ 시적 주인공의 심리를 점층적으로 표현하여 감정 변화의 고조가 잘 드러난다. 그래서 매천의 울분과 김봉학의 행위가 서로 잘 교감되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은 매천이 50세(1905년)에 을사조약의 소식을 접하고 쓴 <聞變>³⁰⁾이다.

哀此博桑下	슬프다 이 박상 아래서
金甌如月滿	금구는 달빛만 가득한 듯
巧與蛟鱗鄰	교활한 교악의 무리와 이웃하여
縱橫一葦亂	종횡으로 배 한 척이 어지럽히네
姦朋載盟墨	간사한 무리들 조약서를 싣고서
搖尾作僂贊	꼬리치며 대접하여 인도하는 꼴이네
港關緘縲缺	항구는 열려있어 수비가 허술하고
輦往金縵絜	수레에 황금 비단 좋은 쌀 실어 가는데
拱手競唯諾(中略)	두 손을 맞잡고 아부하기를 다투네
草野無限淚	초야에서 흘리는 눈물은 한이 없고
地薄即可鑽	형편은 박하지만 뚫을 수 있으리라
嚙血寫此詩	피를 뱉으며 이 시를 쓰는 것은
留與志士歎	지사의 탄식을 남겨 변하지 않게 함이네

이 시는 조약서를 실으면서 아첨하는 간사한 무리들인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한다. 또한 아무런 저항 한번 못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을 읊고 있다.³¹⁾ 매천은 일인을 ‘교활한 교악의 무리’라 하며, 빈번히 조정을 드나들어 결국에 조약서를 체결하게 된 노여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의 판도를 모르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부하는 무리가 들끓음에 한탄하는 것이다. 나라 곳곳에서는 중요한 물자가 밖으로 새고 있는 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29) 기대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227쪽.

30) 황현, 앞의 책, 219~220쪽.

31) 줄고, 「매천시에 나타난 역사의식」, 『고시가연구』 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299쪽.

챙기는 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여기서 매천의 志士로서의 처신에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피를 뺏는 고통으로 나라의 현실을 탄식한다. 따라서 이 시의 끝 구절에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피를 뺏으며 이 시를 쓰는 것은, 지사의 탄식을 남겨 두려움이네’라 읊으며 절명의 결심을 드러낸다.

마침내 매천은 경술국치의 울분을 글로 토해내고 역사의 증언자로서 자신의 의지를 실천시켜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讓國詔書를 보고 기막힌 나라의 운명에 통분하면서 우국애의 의지로 하염없이 눈물 쏟았다.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으로 사리분별과 역사의 통찰이 얼마큼 어렵고도 중요한가를 외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심은 ‘인’으로 이름을 말하고 실천적 의지를 노래한다. 이러한 매천의 마음을 표현한 <絶命詩> 4首 중 3·4首³²⁾를 살펴보겠다.

鳥獸哀鳴海岳嘯	새 짐승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이 강산이 이제는 망하는구나
秋鏡揜卷懷千古 ³³⁾	책 덮고 가을 등에 천고 옛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진실로 지식인이 되기 어렵구나
曾無支厦半椽功	큰집을 지탱하는 서까래 반만큼 공도 없고
只是成仁不是忠	다만 인을 이룰 뿐 충은 아니로다
止竟僅能追尹穀	마침내 윤곡을 따름에 그쳤으니
當時愧不躡陳東	진동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네

위 시는 망국의 충격이 강산의 모든 자연물에까지 이입되어 복받치는 슬픔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감정이입은 극단적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주시한 결과이며, 그것의 발생여부나 발생할 때의 깊고 얇은 정도는 사람이나 시기 또는 경지에 따라 다르다.³⁴⁾ 이는 마음의 변화에 따라 풍경도 변하게 보이는 것처럼 情과 景의 합일을 보여준다. 또한 ‘책 덮고 가을 등에 천고 옛일 생각하니’ 즉 평생 책 읽는 일에 몰두했던 지식인으로서 삶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이르러 지난 일을 회고해 보고 있다. 당시 위정자들은 나라를 잃고도 구구한 변명과 책임 회피를 일삼으면서, 일신상의 영화만을 추구했다. 그러나 매천은 자기성찰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반성하고, 그 행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매천은 儒者의인 소신을 殉節로 드러냄으로써 知識人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위 시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忠’을 이루려한 것이 아닌, 다만 ‘仁’을 이루려 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나라에 대한 충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의해 배운자로서 망국에 대한 의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杜甫의 시 <野望>을 보면 ‘자기 몸이 노쇠하고 병이 많아져 이러 하찮은 자신의 입장으로 국가에 보답한 바 없어’³⁵⁾라고 한 바 있다. 두보가 위대한 것은 그가 근심한 바가 자기 한 몸의 일이 아니고 충군 우국적 정회가 글자 안의 行間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보가 나라

32) 황현, 『매천전집』 권1, 359~360쪽.

33) 鏡과 揜자를 그동안 많은 논저에서 계속적으로 燈과 掩으로 표기했으나, 이는 원전의 확인과 친필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표기되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표기하였다.

34) 주광삼, 앞의 책, 79쪽.

35) 邱燮友 譯, <野望>, 『新譯唐詩三百首』, 三民書局, 中華民國 1978, 275쪽. “西山白雪三城戍 南浦清江萬里橋 海內風塵諸弟隔 天涯涕淚一身遙 唯將遲暮供多病 未有涓埃答聖朝 跨馬出郊時極目 不堪人事日蕭條”

를 생각하며 우려한 마음과 매천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바이다. 매천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나라에 한 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절명으로써 옳음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죽음으로써 매천이 보이고자 했던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었다. 또한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명분 있는 죽음으로 후세에 전하여 강렬한 저항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³⁶⁾ 따라서 매천은 자신의 죽음을 ‘인’을 이룸이라 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유자제서>를 통해 밝혔듯이 “500년 선비를 키운 나라에서 망국을 당하는데, 죽음에 이른 이가 하나도 없다면 되겠느냐”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선비로서 자리하면서 그동안의 지켜온 ‘절의’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난세 속에 자신의 이익만 좇아 변심을 일삼던 일부 위정자들에 대한 경종이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대로 소신껏 행동으로 옮겨 지식인으로서의 실천적 의지 나타낸 것이다. 이는 후세 권계로 남게 한 殺身成仁 시의 표본이 될 것이다.

또한 윤곡을 송나라의 進士로 蒙古兵 侵入에 자결로서 대항한 사람이고, 진동은 송의 貢生으로 고종에게 극언으로써 上疏를 올려 노여움을 사서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서 진동처럼 못했음을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는 겸손의 자세로 자신의 삶에 대한 아쉬움의 한 표현일 것이다. 매천의 <절명시>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매천의 삶과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어 언행일치가 표출된 시라 하겠다.

이상에서 매천의 ‘시로써 승화된 절의’가 표명된 시들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일부 논저에서 그의 은거로 인해 소극적 삶의 방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는 누구보다 현실의 안위를 걱정하고 바르게 시대를 인식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그의 天分인 詩作으로써 실행성을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실천적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매천의 시에 나타난 실행성을 살펴보았다. 그는 시를 통해서 자신 및 주변의 삶과 사회 현실을 주시하며 예리하게 묘사하였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한 <절명시>는 殺身成仁적인 삶과 더욱 일치되었다. 이로써 매천의 시 세계는 그의 삶과 사상 그리고 문학정신이 하나로 발현된 言行一致의 실행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겠다.

Ⅲ. 맺음말

본 연구는 매천 황현 시에 나타난 실행성의 표현을 고찰하였다. 매천의 삶이 농촌에서 이루어진 바, 그 삶 속에 빚어낸 실행성의 의지를 농촌생활사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급변하는 당시 사회현실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 외세 의존에의 현상을 질타하고 그 같은 정서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매천이 가장 자신의 실행성을 강하게 표현한 <절명시>와 의기롭게 殉死한 이들의 절의를 드러낸 시를 통해 그의 실천적 의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풍비풍의 서글픔을 토로한다. 매천은 시를 통해 농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원인을 자연재해인 흉년으로 보기보다는 농민들을 핍박하는 관리들의 횡포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로써 그들의 가혹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매천이 보아 온 농촌의 삶은 사회적 모순과 병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그것들의 원인은 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농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혹독한 정책의 모순에 두었다. 따라서 그

36) 장선희, 「매천 황현의 우곡시 연구」, 『고시가연구』 제1집, 전남고시가연구회, 1993, 225 ~226쪽.

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한 외면하지 않았으니 다분히 그의 시는 사실적이고, 고발적으로 농촌의 삶을 그려냈다.

두번째는 외세 의존에의 질타가 드러난다. 여기서 매천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시에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것을 염원하였다. 매천은 이러한 시들을 통해 변해 가는 세상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고, 그것을 반어적 수법으로 표현하여 경고의 의미를 실는 실행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속에 意在言外의 뜻을 암시하며 意境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망운을 분명히 예감하고, 슬퍼도 그 슬픔을 토해낼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매천은 멀리서 전체를 보고 내부로 직시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시 주제의 효용성을 높였다.

끝으로 시로써 승화된 절의를 표명한다. 매천은 이들 시에서 자신 및 주변의 삶과 사회 현실을 주시하며 예리하게 묘사하였다. 시적 주인공의 심리를 점층적으로 표현하여 감정의 고조가 잘 드러난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한 <절명시>는 殺身成仁적인 삶과 더욱 일치되었다.

지금까지 매천시에 나타난 실행성의 표현을 고찰하였는데, 세밀한 묘사와 고발적인 비장한 미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意在言外의 의경을 표출하였다. 또한 자기 성찰적 실행성의 표출로 살신성인의 정조를 꿰뚫히 그려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매천의 시 세계는 그의 삶과 사상 그리고 문학정신이 하나로 발현된 言行一致의 실행성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앞으로도 매천시의 또 다른 일면들이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著書

-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이론 연구』, 보고사, 2002.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이종목,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이병기, 『梅泉散文研究』, 보고사, 1995.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99.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주광잠, 『詩論』, 동문선, 1991.
황 현, 『梅泉全集』(전5),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_____, 『황현전집』 상하, 아세아문화사, 1978.
_____, 김 준 역, 『梅泉野錄』, 교문사, 1994.
_____, 이민수 역, 『東學亂』, 을유문화사, 1985.
_____, 崔昇孝 편, 『文墨萃編』 상·하, 미래문화사, 1985.
邱燮友 譯, 『新譯唐詩三百首』, 三民書局, 中華民國 1978.

2. 論文

- 공병성, 「황매천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박무영, 「일상성의 대두와 새로운 사유방식」,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장선희, 「매천 황현의 우국시 연구」, 『古詩歌研究』 제1집, 전남고시가연구회, 1993.
정찬웅, 「매천시 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황수정,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_____, 「梅泉 黃玹의 傳記研究」,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_____, 「梅泉詩에 나타난 歷史意識」, 『古詩歌研究』 제1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Ideas in Maecheon Hwang Hyeon's Poetry

Hwang, Su-jeong

This study examined the representation of practical ideas in the poetry written by Maecheon Hwang Hyeon.

First, he revealed his loneliness in his poetry. He thought that the impoverishment of rural areas was caused by corruption by public officers and a contradictory policy. Therefore, he wrote real and critical poetry, speaking of the predicament and resentment of farmers.

Secondly, he criticized the dependency on foreign forces. Maecheon specifically described a society that was changing through his poems, and used irony to warn of the unknown dangers we faced.

Finally, he represented sublime justice in his poetry. He identified the time he wrote sharply through looking at himself and his surroundings. His <Jeol-myeong-si>, which expressed the practical mind of the intellectual, was well matched with his way of living, sacrificing himself to preserve his integrity.

Based on the above study, it was found that his speech and actions were consistent throughout his poetry, in which his life, thoughts and literary mind were brought together.

Key words : Maecheon, critical poetry, practical Ideas, sublime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